에틸렌시장 "흔들"

프로필렌과 가격구조 무너져 "속빈강정"

국내 에틸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기초유분 가운데 프로필렌과의 정상적인 가격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에틸렌시장이 호황속 불황이라는 극단적 양극화현상을 낳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1/4분기 에틸렌시장이 석유화학부문의 계속된 호황세에도 불구하고 가격면에서 급락을 거듭해 프로필렌과의 가격차가 톤당 40 50달러정도 나던 것에서 탈피, 4월현재 오히려 프로필렌 수입가격이 톤당 600달러로 에틸렌보다 265달러나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반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4월 국내 에틸렌가격은 수입가격기준 톤당 345달러로 94년12월 575달러에 비해 무려 230달러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격폭락은 1월 연휴기간동안의 중국 유도품특수 감소와 2월들어 계속된 일본물량의 저가공세가 어우러지면서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틸렌 수입현황을 보면, 94년11월 일본 게이오가 연산 60만톤규모의 에틸렌공장을 신설, 상당량을 국내에 유입하면서부터 비롯돼 95년 1 4월까지 삼성종합화학 1만4000톤, 대한유화 8000톤, 현대석유화학 7000톤 등 모두 3만톤이상을 들여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가격경쟁력과 재고물량을 앞세워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공세를 취해왔던 94년말까지의 국내 시장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일본의 저가공세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 가격을 보면 대한유화가 운임 60달러정도를 포함 톤당 432 445달러에 수입했으며, 삼성종합화학이 445달러, 현대석유화학이 톤당 442달러에 각각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의 국내가격은 이보다 30 40달러정도 높은 465 500달러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일본물량의 저가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은 수입물량을 막기 위해 수입가격보다 더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현재 프로필렌가격이 월등히 높아 100% 가동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의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 에틸렌시장이 반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에틸렌시장은 1월 PE 등 유도품의 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일본의 저가공세가 거듭되면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림산업이 정기보수에 들어가는 4월과 5월중에도 가격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원가경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의 경우 국내는 단 한척의 에틸렌 국적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용면에서 조차 일본에 뒤지는 등 호황속 불황이라는 국내 에틸렌시장의 양극화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화학저널 1995/5/15>